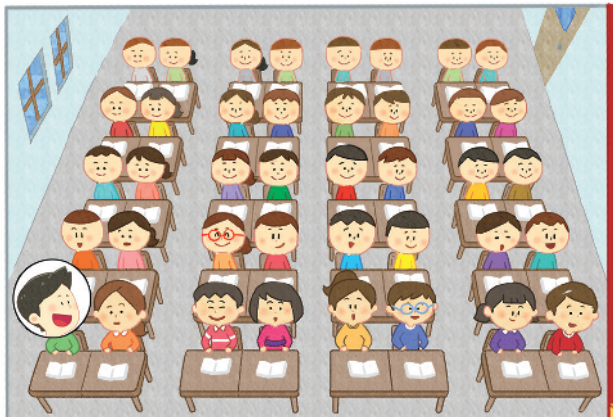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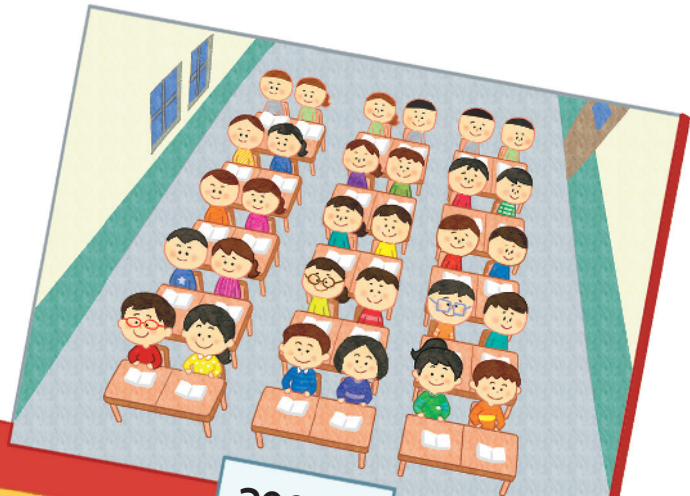


꺾은선그래프

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을 알기 쉽게 나타내 볼까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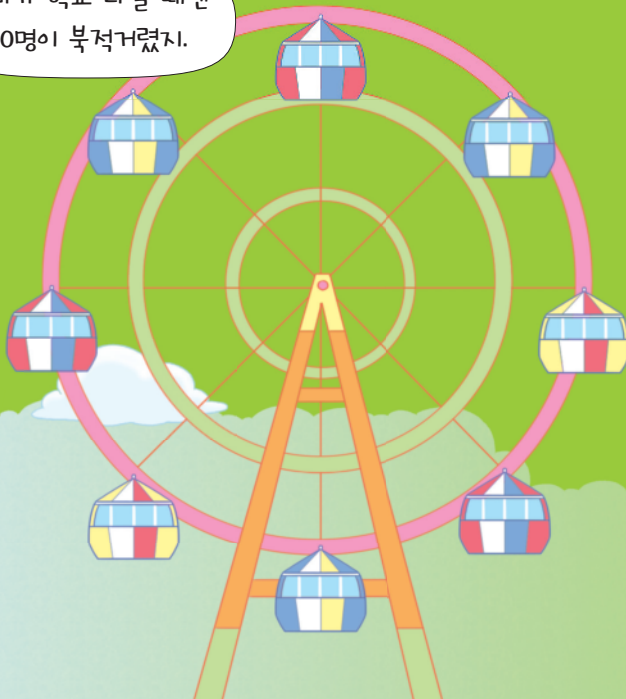
1990년



2000년



아빠가 학교 다닐 때엔
40명이 북적거렸지.





외로운 교실

우리 아빠가 학교 다니던 때엔
아이들이 북적북적
교실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.
우리 삼촌이 학교 다니던 때엔
아이들이 북적북적

교실에서 신나게 놀았다.
하지만 내가 다니는 교실은 널찍널찍
책상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외롭다고 할 거야.
의자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심심하다고 할 거야.
비탈진 레일을 내려오는 롤러코스터처럼
학생 수가 주르륵 줄어들어서 그런 거래.
교실은 기다리네,
아이들이 다시 북적거릴 그날을.

